

송진우선생 추모 특별강연회, 2016.11.23. 오후 3시 중앙고등학교 강당
중앙학교의 독립운동과 고하 송진우(古下 宋鎭禹)선생의 역할

3·1운동에서 건국운동으로 이어진 고하 송진우의 이념과 행동 - 중앙학교와 동아일보에서 키운 한국의 미래상 -

김학준 (단국대학교/한동대학교 석좌교수)

고하선생은 1919년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거족적으로 일어났던 기미년 3·1운동을 획책하신 분들 가운데에 한분이다. 1918년부터 당시 동경에 있던 유학생들과 기맥을 통하면서 인촌 김성수선생의 자택을 중심으로 인촌 김성수선생, 고하 송진우선생 그리고 기당 현상윤선생 세분이 회합을 하면서 “저 독립운동의 기운을 우리 한국 전역에서 크게 일으켜 보자.”는데 합의하였다. 이 세분은 모두 중앙학교를 이끌고 계셨다.

마침 1919년 2월 8일 동경에서는 이 세분과 늘 가깝게 지냈던 동지들이 독립운동의 함성을 크게 울렸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이 세분들에게 전달되었고 바로 여기에서 3·1운동의 획책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고하선생은 3·1운동 직후에 3·1운동 주모 48인 중의 한분으로 지목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시게 된다. 33인은 표면에 나오셨던 분들이고 나머지 15분들은 사후 뒷정리를 위해서, 그리고 독립운동의 지속성을 위해서 표면에는 나오지 않으셨다. 이 나머지 15분들 가운데는 뒷날 대한민국의 부통령이 되시는 함태영 목사도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 48인중의 한분이 고하선생이었다는 사실은 고하가 일제강점기에 그 엄혹한 폭압정치 아래서도 민족혼을 잃지 않고 독립을 꿈꾸면서 동포들을 격려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감옥에 갇혀서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는 가운데도 일체 함구하시고 독립의 정당성을 일제 관원들에게 설교하셨던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남아 있다. 그 이후 고하는 1926년에도 바로 이 중앙학교를 중심으로 대규모 민족항일운동의 발기를 기도하셨다. 3·1운동의 진원지가 이 중앙학교였던 것처럼 6·10만세운동 이것 역시 중앙학교가 그 주 무대였다는 사실은 바로 중앙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에도 고하는 동아일보사의 사장으로, 또는 동아일보사의 주필로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역할을 달리하는 가운데 식민지 폭압정치 아래 시달리는 동포들을 향하여 민족혼을 잃지 않도록 계속 고취시켰다.

그러면 무엇이 고하에게 민족혼의 고양을 뒷받침하게 해주었던가 하는 것에 대한

그 해답을 고하선생이 동아일보에 발표했던 『세계정세와 조선의 장래』라는 대논설에서 찾을 수 있다. 고하는 1925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던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이승만을 비롯한 당대의 독립운동가들을 회견한 후에 돌아와서 이 논설을 발표하였다. 이 논설에서 고하는 벌써 국제정치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를 대변하는 소련 사이의 두 강대국 사이에서 펼쳐질 것임을 예고하였다. 매우 날카로운 관찰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특히 태평양 일대에서 경쟁 속에 조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제시했던 것이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속에서 활로를 열어가야 할 우리 한국에게도 여전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하는 그 뒤에 다시 한 번 투옥의 경험을 갖게 된다. 1926년에 바로 네이션지에 실렸던 논설을 동아일보에 게재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그리고 그것이 조선의 민족독립을 옹호하고 고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서대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것이 고하선생이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두 번째 영어의 생활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고하에게는 영예의 매달 혹은 훈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즉 해외에 망명하지 않으면서도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항일 민족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몸으로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이런 고하선생의 민족정신을 보여주는 작은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에 양근환이라는 애국지사가 있었다. 이 애국지사는 일본의 동경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국내의 한 친일파가 조선을 일본의 지배 아래 오랫동안 두어달라는 청원서를 들고 동경을 방문한다는 보도를 접하자, 양근환은 격분하여 그 친일파의 호텔을 찾아가서 글자 그대로 칼로 찢러 죽였다. 이것이 양근환 의사의 큰 의거였다고 하겠다. 동경 한 복판에서 조선에서 온 한 친일파를, 일제의 식민통치를 지지하는 청원서를 만들어온 친일파를 칼로 처단했다고 하는 행동은 일본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더구나 양근환 의사의 부인은 일본 여성이었고, 그 자신도 일본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으로 일본의 조야가 들끓었다. 그런데 양근환 의사의 의거 그 자체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양근환 의사가 중형을 받게 되자 국내의 여러 애국지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저는 이제 장기수로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 딸의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 딸의 뒤를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여러 군데 보냈는데 어느 곳에서도 호응하는 답장이 없었다. 오직 한 군데, 고하선생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아무 걱정 말게. 자네 참 훌륭한 일을 했네. 내가 돌보아 줄 터이니 딸 걱정은 말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도록 하게.”라는 편지 자료를 최근에야 발굴을 했다. 그래서 역시 고하선생이 말로만 항일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아니라 이런 곳까지 잔신경을 쓰면서 애국지사들을 보살펴 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그 당

시 일제의 통치가 얼마나 강압적이었던가. 그 감시가 너무나 치밀하고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그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 양근환 의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딸의 장래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게다가 그 당시에 편지가 모두 검열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당당하게 편지를 쓰셨다는 점에서도 거인의 풍모를 느끼게 된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해방 직후에 책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점이 있었다. 1945년 12월쯤 보수 세력을 대표하여 고하, 가인 김병로 전 대법원장 등 그리고 진보 측을 대표하는 몽양 여운형 등 여러 민족의 지도자들이 종로의 어느 곳에 모인다. 좌우가 손을 잡아보자, 하는 회합의 자리였다. 그 자리에 양근환 의사가 나와 있었다. 그것도 칼을 들고 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합의를 못 보면, 또는 합의에 방해가 되는 민족 반역자가 있다면 내가 이 칼로 처단을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양근환 의사가 오게 되었을까, 그 배경이 궁금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자료를 보고는 그렇게 인연이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고하가 양근환 애국지사에게 보냈던 그 두 분의 아주 끈끈한 인연이 맺어졌던 것이고, 그 인연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고하 선생이 양근환을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만큼 고하는 말로만 애국 항일 독립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 지사들의 자녀까지 챙기는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분이었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이다.

고하는 그 뒤에도 국내에 머물면서 사실상 민족혼을 일깨우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는 많은 운동을 주도하셨다. 그 예 중의 하나로서 바로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집과 땅을 지켜주는 일이었다. 그 때 어찌 잘못되면 넘어갈 상황이었었는데 고하가 동아일보를 통해 “이 땅과 집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충무공 이순신이 어떤 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송사의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해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에 있다”는 믿음으로 바로 국조 단군의 열과 존재를 민족에게 알리기 위하여 단군릉 개축 작업을 주도 하셨다. 단군릉은 원래 평안남도 강동군에 있다. 그래서 고하가 주도하고 동아일보가 실무를 맡아서 초라하게 남아 있던 단군릉을 개축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이다. 북한은 원래 단군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북한 정부 수립에 기여했던 여러 이론가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훗날 북한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방송대학 총장도 지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과 국회의장도 지낸 백남운이다. 그런데 백남운은 아예 단군을 주장이라고 불렀다. 단군은 별개 아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의 국조라고 할 수 있는가, 단군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던 부족의 주장이라는 말까지 썼다. 이렇게 단군을 우리 민족의 국조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했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은 단군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미신이라고까지 했다. 그래서 북한에서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는 북한의 교과서든

어디에서든 단군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설령 있으면 멸시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놀랍게도 바로 고하가 단군릉 개축 작업을 시작하고 마무리했던 시기로부터 59년이 지난 1993년에 김일성이 선두에 나서서 김정일을 데리고 다니면서 단군릉 개축작업을 시작했다. 1989년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파탄에 빠지기 시작했던 때이다. 동독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공산정권이 줄이어 무너지기 시작했던 때이다. 북한에서도 위기를 느낀 것이다. 그 사이에는 마르크시즘, 레닌이즘 등을 앞세우기도 하고 주체사상을 앞세우기도 했으나 안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야 뒤늦게 역시 이념적인 지도 노선은 단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단군릉을 개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거대하게 단군릉을 세우게 된다. 북한에서는 일을 한 번 시작하면 견잡을 수없이 커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군릉을 개건하면서 국조 단군의 뼈를 찾아냈다고 발표를 한다. 뼈를 찾아내서 보니까 ‘그 키가 한 2미터50센티는 되는 것 같은데, 불행히도 엉덩이뼈는 다 썩어서 못 찾았다.’ 이런 보고까지 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 나름대로 단군의 유해, 유골을 복원하고 크게 전시를 한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단군의 부인의 뼈도 발굴을 했다고 하면서 거대한 행사를 한다.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단군을 지켜주던 경비원들 4명의 뼈를 찾았다고 하면서 그 단군릉의 개건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간다. 이 이야기는 바로 고하가 민족의 선각자라를 말을 듣고 있는데 과연 그렇구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59년 뒤에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따라오는 일을 식민통치하에서 했다는 사실, 이것은 상당히 감동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뒤에도 고하는 조선어학회를 돕는다. 당시 조선어학회는 일제 총독부에게는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다. 왜냐면 조선어 말살정책을 써야 하는데 조선어학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최현배 선생님, 이희승 선생님, 정인승 선생님 이런 분들이었던 것이다. 이런 분들은 조선어를 잊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정신에서 조선어사전을 편찬하기도 하고, 조선어맞춤법을 새로 제정하는 운동도 펴나갔다. 그런데 조선어학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가 못했다. 이때 조선어학회의 학문 활동, 또 조선어사전 편찬사업 등을 팔을 걷어 부치고 도와주던 분이 바로 고하선생 선생이었고 고하선생이 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동아일보였다. 그래서 고하선생의 민족 독립운동은 매우 실질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바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글에 어두웠던가. 이때 바로 문맹퇴치 운동을 부르짖으면서 ‘브나로드(v narod)운동’을 시작한 분이 바로 고하선생였다. 브나르도, 이것은 제정 러시아에서 있었던 운동으로 ‘인민에게로’라는 말인데, 즉 백성에게로 다가가자 하는 운동이었는데, 바로 고하가 주동이 되어 일제 식민통치기구의 억압 속에서 농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문맹이 퇴치 되도록 힘을 쓰셨다. 바로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고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항일운동을 이끄셨는지 짐작을 하고도 남겠다.

고하는 폭압적인 일제 강점기에 민족혼을 되살리기 위하여, 적어도 우리 조선민족이 민족혼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여러 방면으로 아이디어를 내시고 일을 추진해 나갔다. 이러했기 때문에 일제는 어쨌든 고하를 회유해서 일제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또는 아예 암살하려는 음모까지 꾸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고하는 일관되게 일제의 회유를 뿌리쳤다. 특히 일제가 패망기에 이르렀을 때 원서동 고하 자택을 일일이 감시했다. 매일같이 누가 출입하나, 누가 다녀가나, 고하는 누구와 만나는가 하는 것을 감시당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셨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일제가 패망에 직면하여 조선의 지도자들을 면담하기 시작했을 때, 고하를 면담하면서 정권 인수를 요청하였지만 분명하게 거절하였다. 이때 고하선생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큰 교훈이 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한 직후, 제1차 대전 때, 프랑스의 구국영웅이었던 페탕원수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모양을 취한다. 페탕은 1차 대전 때 구국의 영웅이었고, 프랑스 국민들의 높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분이었는데, 이 분이 나치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페탕 정권을 세웠던 것이다. 이것은 반역사적, 반민족적 행동이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프랑스의 민주정부를 세웠던 드골은 페탕이 1차 대전의 구국영웅이었음을 감안하면서도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필리핀에는 라우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대법관도 지내는 등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일제에 굴복하여, 일제가 주는 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실상 일제의 괴뢰정부를 이끌었던 것이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일제가 패망하면서 라우렐은 민족적 지도자의 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 고하선생은 그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나는 결코 조선의 페탕이 될 수 없고, 라우렐이 될 수 없다. 일제는 반드시 망할 것인데 그 뒤에는 조선인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때, 협력자들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나라도 남아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일본제국의 협박을 모두 뿌리쳤던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한다.

1945년 8월 15일에 마침내 일제는 패망하면서 일제는 고하가 계속해서 정권 인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마침내 진보와 좌파를 대표하는 몽양 여운형에게 정권 인수를 제의했고, 몽양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웠음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때 고하는 몽양을 안타깝게 여기셨다. “몽양도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제로부터 정권을 받는다는 말인가.”라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은 여러 기록들에 잘 나와 있다. 그런데 이때 고하는 일제에게 정권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중국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있으니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가 이어 받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해방 즈음에, 일제의 패망 당시에 가지고 있던 고하선생의 정견이었다. 패망한 일제로부터 정권을 받아서는 괴뢰가 될 뿐이니, 그것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

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정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이렇게 되어있다.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 새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고하의 주장이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35년에 걸쳐 있었던 폭압적 일제의 강점 통치에 고하는 민족혼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싸웠고,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마지막에는 암살의 위협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지조를 굽히지 않고, 그대로 광복의 날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리고 일제의 패망 직후에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는 일제로부터 받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정론, 정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장에 바탕을 두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국민회를 조직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돌아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였던가. 그러다가 마침내 연합국이 모스크바에서 3상회의, 즉 세 나라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코리아에 대한-일부러 코리아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당시는 조선과 한국이 병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 4개항 의정서를 발표했을 때, 그 4개항 중의 하나에 바로 ‘연합국은 앞으로 독립되는 정부에 5년 이내의 신탁통치를 부여한다.’는 구절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고하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고하의 입장은 간결하다. ‘우선 우리가 그 협정문이라도 제대로 보고 이야기하자.’ 왜냐하면 1945년 12월 27일에 협정 내용이 국내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 이것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무슨 신탁통치인가. 다 듣고 일어서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하는 그 회의에 나가서 “우리 협정문이라도 보고 이야기 하자, 협정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당시는 어느 통신사 보도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 보도 하나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협정문 전체를 보면서 이야기 하자는 것이 고하선생 선생의 첫 번째 태도였던 것이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자세였던 것이다. 물론, 당시로서는 통신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에 신탁통치라는 단어만 보고도 즉각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35년에 걸쳐서 식민통치를 받았는데, 또 무슨 신탁통치인가 하는 것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민족적 감정의 발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통신에 나와 있던 신탁통치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분들의 태도는 옳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같은 지도자였던 고하의 협정 전문을 보고 태도를 결정하고자 주장했던 것은 훨씬 더 책임 있는 정치가다운 자세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밖으로 전해지면서, 당시에는 고하선생이 신탁통치에 찬성한다고 오해를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는 연합국의 도움을 받았고, 연합국이 아직도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합

국의 입장이 뭔지도 자세히 보면서 우리의 진로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신탁통치는 반대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도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셨던 것인데, 이것이 그만 신탁통치 찬성으로 오해를 사면서 한 흥한의 총탄을 받고 별세하셨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고하가 당시 생존해 계셔서 해방 정국에 임하셨다면 우리 해방 정국의 물결들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형편도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만큼 고하는 무게 있고, 책임감을 가진 민족적 선각자였고, 경륜가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많은 정변과 전쟁 등을 겪어오면서 오랫동안 존경받는 정치지도자를 갖지 못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콘라드 아데나워라는 초대 총리에 대한 존경심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아데나워를 아예 ‘노(老)아데나워’라고 부르면서 국로 대접을 하고 있다. 그만큼 독일인들은 어릴 때 그런 아데나워가 걸었던 길을 다시 생각하면서 후배정치인들, 후배총리들은 아데나워의 사상과 행동을 자신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이것이 독일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 잦았던 정변, 전쟁, 그 사이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따를 수 있다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오늘날 까지도 우남이 옳았는가, 백범이 옳았는가 하는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 형편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하가 그런 어려웠던 시기에 지녔던 선각적 사상, 일관된 태도, 책임감 있고 신중한 태도 등을 거듭 우리 후대가 재음미하고 교훈으로 받았으면 하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오늘날 우리 국내는 매우 어지럽다. 예전 YS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우째 이런 일이...” 이런 일들이 계속 쏟아져 나고 있다. 진실로 올바른 노선이 요청되고 또한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절박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 바로 3·1운동의 책원지였으며, 6·10만세운동의 책원지였고, 오랫동안 민족정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중앙학교에서 고하 송진우 선생의 사상과 행동을 조명하는 이러한 학술회의의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